

# 2026년 군산시 지하안전위원회 회의록

## □ 개 요

- 일 시 : 2026. 4. 8.(수) 15:00 ~ 16:00
- 장 소 : 재난종합상황실(5층)
- 참 석 자 : 위원 : 4명(당연직 1, 위촉직 14)
- 내 용 : 2026년 군산시 지하안전관리계획(변경 안) 심의

## □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참석 현황

- 위원구성 : 7일(건축 2, 지질 3, 토목 1, 전기 1)
- 임 기 : '24. 12. ~'26. 11.

분야별	위 원		주 요 경 력	비 고	
	소 속	성 명			
<b>참석 4인</b>					
지하안전위원회 (7명)	건축 (당연직)	안전건설국장 (당연직)	문춘호	- 안전건설국장	참석
	지질 (3)	JY엔지니어링	장우영	- JY엔지니어링 대표 - 전주시 지하안전위원회(현)	불참
		군산대학교	원명수	- 군산대학교 교수 - 무주군 지하안전위원회(전) - 전북도 지하안전위원회(전)	참석
		대한건설기술단(주)	장서용	- 대한건설기술단(주) 부사장 - 광주광역시 지하안전위원회(현) - 여수 현장 조사위원회 위원(전)	불참
	토목 (1)	(주)천마기술단	홍운기	- (주)천마기술단 부사장 - 전주시 지하안전위원회(현)	불참
	전기 (1)	한국전기안전공사	서영진	- 한국전기안전공사 부장	참석
	건축 (1)	태권브이건축사	임채엽	- 태권브이건축사	참석

## □ 회의록

구 분	내 용
사회자 및 발표자 (중대재해관리계장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2026년 군산시 지하안전관리계획(변경 안) 설명 진행</li> </ul>
문춘호 위원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현재 군산시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됨.</li> <li>○ 해당 용역에서 군산시 지하안전관리계획에 반영된 주요 내용 및 검토 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청함.</li> </ul>
용역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 및 시·도 지하안전관리계획을 기반으로 군산시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였음.</li> <li>○ 기본방향은 산업통상부 지하안전관리계획 표준품셈을 참조하여 설정하였음.</li> <li>○ 중점사항으로 군산시의 기초현황 및 지반침하 사고현황을 분석하고, 지하안전평가를 수행하는 지하개발사업자의 현황과 안전관리계획서 준수 여부, 지하시설물관리자의 안전점검 현황 및 안전관리규정 수립·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음.</li> </ul>
원명수 위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지반침하 사고의 주요 원인은 하수관 손상인 것으로 분석됨.</li> <li>○ 이에 따라 군산시 기초현황 분석과 관련하여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지하시설물에 대한 전체 및 지하안전법 적용 대상인 500mm 이상 관로의 현황 파악이 필요함.</li> </ul>
용역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금번 지하안전관리계획 변경안 심의를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지하시설물관리자별 관망도를 제작하였음.</li> <li>○ 다만, 한국국토정보공사 제공 자료와 지하안전정보시스템(JIS)에 등록된 지하시설물 정보 간에는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.</li> </ul>

<p>임채엽 위원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소규모)지하안전평가 대상 지하개발 현장의 경우 공사 중 지하수를 지속적으로 양수하고 있음.</li> <li>○ 현행 지하안전관리계획은 해당 건설현장 내부의 지하수에 한정하여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.</li> <li>○ 그러나 지하수는 공사현장 내부에 국한되지 않고 주변 지반 및 지하수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.</li> <li>○ 이에 따라 정우영 위원이 제시한 의견과 같이, 건설현장과 인근 지역의 지하수 변동 분석을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.</li> <li>○ 이와 같은 사항을 반영하고 관리할 주체에 대하여 질의함.</li> </ul>
<p>용역사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소규모) 지하안전평가 대상 건설현장의 경우, 지하안전평가 이행 시 건설현장에 대해 굴착깊이(H)의 3배 반경(3H) 범위 내 지하수 변동 분석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음.</li> </ul>
<p>임채엽 위원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지하안전평가 시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있으나, 실제 공사 과정에서 주변 지하수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·관리까지는 미흡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.</li> </ul>
<p>용역사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지하안전법에 따라 굴착깊이 20m 이상의 지하안전평가 대상 건설현장의 경우 광역 지하수 흐름 분석을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.</li> <li>○ 그러나 군산시의 경우 대부분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 현장에 해당하여, 광역적 범위의 지하수 영향 분석이 적용되는 사례는 제한적인 실정임.</li> <li>○ 다만,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 현장의 경우에도 지하수 유출량 검토를 수행하고 있으며, 지하 굴착 시 배면에 지하수위계를 설치하여 유출로 인한 지하수위 저하량을 계측·관리하도록 되어 있음.</li> <li>○ 해당 계측 및 관리는 시공사가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.</li> </ul>

<p>임채엽 위원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지하수 보조측정망의 경우 현재 군산시에 총 21개소가 설치된 것으로 파악됨.</li> <li>○ 매년 3개소씩 신설하는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기준 등 세부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함.</li> </ul>
<p>중대재해관리계장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하수과에서 전북특별자치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, 지하수 보조측정망은 매년 3개소씩 신설하여 2030년까지 총 30개소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음.</li> </ul>
<p>임채엽 위원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보조측정망 설치 시 도심지 등 지하수 영향 관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.</li> </ul>
<p>문춘호 위원장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지하안전평가 대상 건설현장의 경우 지하안전법에 따른 지하수 변동 분석 기준 등을 이행하면 되는 사항임.</li> <li>○ 다만,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 현장의 경우 행정절차 이행 시 지하수 분석에 대한 사항을 권고 또는 권장사항으로 제시하여 결과에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.</li> </ul>
<p>용역사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소규모)지하안전평가의 경우 지하개발사업자가 승인기관인 군산시에 서류를 제출하고, 군산시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협의를 요청하며,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국토안전관리원에 검토를 요청하는 절차로 운영됨.</li> <li>○ 따라서 해당 사항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또는 국토안전관리원의 평가 절차 중 제시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며, 지하수 분석에 관한 사항은 권고 또는 권장사항으로 충분히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</li> </ul>
<p>문춘호 위원장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2025년 8월 금암동 일원에서 지반침하가 발생한 바 있음.</li> <li>○ 원인 파악 및 복구공사 추진 과정에서 지하시설물 현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음.</li> <li>○ 상·하수도의 경우 우리시 관망도를 활용하여 확인이 가능하였으나, 전기 분야와 관련하여 전기안전공사에서도 별도의 관망도 또는 시설 현황을 관리·확인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.</li> </ul>

서영진 위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전기안전공사에서는 케이블 매설 상태 및 설비 이상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주로 수행하고 있음.</li> <li>○ 전기설비에 대한 현황 파악 및 관리 업무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소관하고 있음.</li> <li>○ 이에 따라 향후 지하안전위원회 위원 구성 시 한국전력공사의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</li> </ul>
중대재해관리계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현재 한국전력공사 지하시설물 관리자와 안전총괄과 간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있음.</li> <li>○ 향후 지하안전위원회 위원 구성 시 한국전력공사 측에 협조를 요청하겠음.</li> </ul>
원명수 위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굴착공사 착공 및 터파기 시행 시 해당 현장에 대한 초기 점검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.</li> <li>○ 군산시에서도 지하굴착 공사 추진 시 해당 현장에 대한 실태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</li> </ul>
중대재해관리계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현재 (소규모) 지하안전평가 대상시건설현장 중 착공 중인 현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.</li> <li>○ 향후 지하개발사업 대상 현장이 착공할 경우 안전관리계획서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추진하고, 필요 시 지하안전위원회 위원들의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겠음.</li> </ul>
문춘호 위원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안건 원안 의결(가 4, 부 0)</li> </ul>
문춘호 위원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폐회 선언</li> </ul>